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 1부 -

■ 일시 | 2021. 5. 31(월) 14시 - 16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

■ 중계 | CBCK한국천주교주교회의 유튜브 채널

■ 1부

개회사 | 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환영사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형대체형벌법안 대표발의 예정)

인사말 | 박병석 국회의장

인사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말 |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2부

좌장 | 김형태 변호사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발제 |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현대일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토론 | 이경화 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

토론 | 이석배 교수 (단국대학교 법학과)

토론 | 이재영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토론 | 김준우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수용자인권증진모임)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개회사 | 김선태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평화를 빕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태 주교입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01년 정의평화위원회 산하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설립하고 타 종교들을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들과 연대하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사형제도를 반대한다는 가톨릭교회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시면서, 아무리 끔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24년째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사실상 사형폐지국가 (Abolitionist in Practice Country)’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없앨 때입니다.

우리 국회는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이번 20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총 여덟 건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모든 주교님들과 사제, 수도자, 신자들은 4차례에 걸쳐 총 40만명이 자필 서명으로 사형제도폐지 국회입법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을 훨씬 넘는 17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여야의원들의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발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회에 계시니 고맙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계기로 더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참혹한 범죄에 대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히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공동주최 해 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과 국회 이상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서면과 영상으로 인사와 마음을 보태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께도 존경을 보냅니다.

무엇보다 사형확정자들 수십 명을 심층 면접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계시는 김대근 박사님의 발제가 크게 기대됩니다.

오랜 시간 사형제도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이석배 교수님, 김준우 변호사님, 현 대일 신부님도 토론을 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 세미나에 함께 해주셔서 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 이경화 검사님과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과 이재영 입법조사관님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몇 달간 이 세미나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우리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가톨릭교회와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많은 이들을 대신하여 우리 국회가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완전한 사형제도의 폐지를 통해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 국가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3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

환영사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형대체형벌법안 대표발의 예정)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형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함께 공동주최해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지 23년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36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198개국 중 사형을 폐지한 나라는 142개국에 달한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결과 실재가 불일치하는 것을 실제와 맞는 법제도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5대 국회부터 19회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빠짐없이 총 8번에 걸쳐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흉악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사형 집행에 대한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형을 한다고 해서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실증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의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 추후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억울한 사법살인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있길 바랍니다.

사형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주신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과 좌장으로 함께 해주신 김형태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현대일신부님, 이경화 검사님, 이석배 교수님, 이재영 입법조사관님, 김준우 변호사님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에 걸 맞는 형벌 체계가 갖춰나가는데 한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년 5월 31일 국회의원 이상민

인사말 |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상민 의원님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그리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입니다.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던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2007년 12월, 국제앰네스티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가 일정한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나라가 106개국입니다. 우리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를 포함하면 142개국에 이릅니다. 국제적 흐름이라고 할만합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중단)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합헌 의견이 '7대2'에서 '5대4'로 줄어들었습니다. 2년 전, 천주교계가 헌재에 다시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재가 관련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존속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습니다. 사형제가 흉포한 범죄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사회·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갤럽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한 결과가 주목을 끌었습니다. 적절한 대체형벌이 마련되면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0%를 훨씬 넘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사형 대체형벌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특히 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바탕을 둔 발표에 기대를 겁니다. 오늘 토론 결과를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활발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회의장 박병석

인사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함께하는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가 발간한 「2020년 연례사형보고서」에 따르면 108개 국가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였고,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44개에 달합니다.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르기 힘든 국제적 흐름이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국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과거 7차례의 유엔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에 관한 결의」 표결에 모두 기권하였으나, 2020년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법무부는 올해 1월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형제도 존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보장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박탈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한 사형제도가 범죄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검증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형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형벌제도의 근원적 목적은 교육과 순화로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사회 통합을 꾀하는 것인데, 사형은 생명을 앗아가는 형벌로 교화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사형을 대체하여 형벌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을 모색하고 대체형벌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인사말 |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한인섭입니다.

먼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위원장이신 김선태 주교님, 특히 천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존중을 향한 한결 같은 열정에 존경을 표하고, 사형수를 포용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박병석 의장님과, 성실한 입법자이신 이상민 의원님, 그리고 사형 문제를 인권정책으로서 남다르게 고민해오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발제자와 여러 토론자분들,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사형문제를 고민하시면서 함께 연대하고 활동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와 더불어 사형제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지만, 전지구적으로 사형이 점차 폐지되어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유럽평의회 모든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미국에서도 두 번째로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버지니아 주가 2021년 3월 24일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50개 주 가운데 사형제를 없앤 주가 23개로 늘어난 것인데요. 우리 정부 또한 2020년 11월 17일 제 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찬성 표결을 던져서, 동 결의가 표결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수의 여론은 흉악 범죄에 대한 반발과 분노로 사형에 대해 우호적이지만,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체형벌을 통한 사형의 폐지에는 우리 국민들이 상당 부분 공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의 사형 존폐에 대한 논란이 아닌, 사형 폐지 이후의 변화와 합리적인 형사정책적 대안을 탐구하는 논의가 진지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2019년에는 사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조만간 그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19년 『사형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과 2020년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 및 대체형벌에 관한 연구』는 입법적 결단에 의해서든 아니면 사법적 결단에 의해서든 사형이 폐지된 이후, 필요한 법령 정비의 방안과 대체형벌의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형 폐지 이후 가능한 대체형벌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를 최대한 정리하였고, 특히 미국 연방과 각 주, 그리고 유럽 평의회 모든 국가의 사형제 및 대체형벌 현황을 정확하게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형제 존폐의 거대한 실험장’이고, 사형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유럽은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대체형벌에 대한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면밀한 비교법적 검토는 사형과 같은 국가형벌을 접근하는데 매우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연구는 미국 연방과 각 주, 그리고 유럽 각국의 사형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설명의 오류를 일일이 수정하였고 2020년 12월 현재까지의 제도 상황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최근까지의 가장 정확한 분석과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언젠가 사형 폐지에 따른 급작스러운 형사사법의 혼란과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었던 우리들 고민과 탐구가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 날이 올때까지, 우리 연구원과 연구자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3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인섭